



남성고등학교 월간 대학입시정보

가슴을
흔들고
새로운
세계를
비견을
돌려
놓을
사랑을

(063)811-3813(교무실)
(063)859-9186(진학실)
(063)858-3908(Fax)

제2017-3월호

2017년 3월 24일(금)

솔밭안 기자단

조 단(10) 김서윤(7) 한정욱(10) 배성현(8) 김현중(7) 정민호(10) 권준환(3) 김민규(3) 문정준(2) 정상용(6) 김재영(9) 최준혁(10)
김민준(5) 김 현(9) 이정인(9) 김형민(2) 박준휘(7) 양 건(7) 김규원(3) 임규진(1) 문서빈(6) 신동호(10) 배윤혁(3) 남현욱(8) 송건우(6)

학생부 종합전형, 비교과 활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

C.O.N.T.E.N.T.S

입시 정보 지면 안내

- 학생부종합전형, 비교과 활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 / 1-4면
- 대략이 밀리는 학생부 종합전형 / 5-6면
- 3월 학력평가 이후 수험생 입시 전략 방법 / 6-7면
- 시기별 입시전략 및 연간계획 로드맵 / 7면
- 고1을 위한 동아리활동 가이드 / 8면
- 자기소개서, 그것이 알고 싶다 / 10-12면
- 서울대 자기소개서 작성의 실재 / 12면

※ 본 자료는 언론 및 기타 입시기관에서 발표한 정보들을 정리하여 제작한 것으로 반드시 출처를 밝혀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학교홈페이지 입시정보란에 E-mail 및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자료집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비교과가 중요해지는 원인

대학 진학에 있어 학생부 종합전형의 중요성은 이제 더 이상 긴 설명이 필요 없게 되었다.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논란이 남아있지만 몇 가지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뒷받침한다.

선발권을 가진 대학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 선발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우수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부각되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다는 연구결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정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정책 중 사교육 억제와 고교교육 정상화에도 높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논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꾸준히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교과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이해하려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입에서 대체로 자리 잡게 된 위의 원인을 먼저 알아야 한다.

대학에서 왜 간편하고 단순한 성적으로 줄을 세우는 방법 보다 복잡하고 주관적 선발 여지에 대한 오해를 받아가면서도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학생부 비교과의 내용평가를 늘려가려 하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종합전형 준비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좋은 학생부 비교과 기록의 조건

이미 충분히 알려져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들이 입학에 열망하는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의 주요 전형방법이기 때문에 소위 선도적인 주요 대학의 입학처와 입학사정관들을 통해 현재도 끊임없이 연구되고 진화 발전해 나가고 있다.

모든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서울의 상위권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간과하고 입시를 생각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재 대입의 현실이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들 주요 대학들이 소개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방법과 내용 요소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이 요소를 통해 대학이 선발하고 싶은 학생의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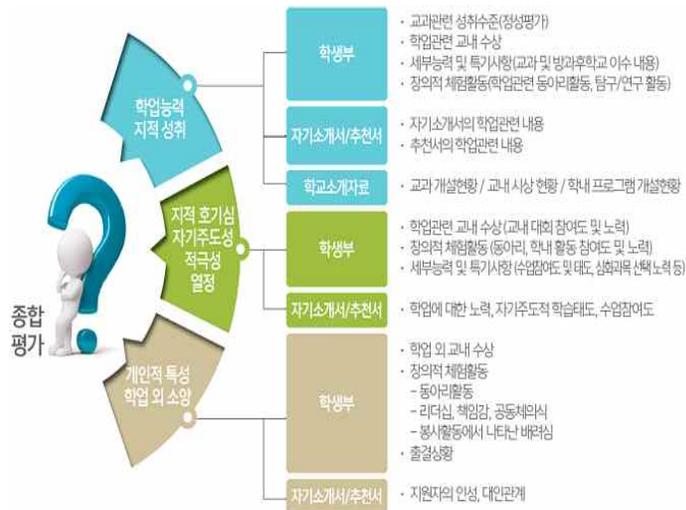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법은 각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1단계는 서류평가, 2단계는 면접을 통해 서류에 대한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서류는 잘 알다시피 ①학생부, ②자기소개서 ③ 교사추천서 등으로 이루어진다.

서류가 중요한 이유는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바로 탈락을 하여 면접은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은 많지 않지만 전형 간소화로 인해 면접 없이 서류만으로 평가하거나 서류 중 학생부만 제출하는 대학도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중심 그중에서도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수시모집 전체 인원을 선발하며, 종합전형 연구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서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 요소**이다.



[서울대 입학처 아로리웹진, 2017학년도 서울대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책자 발췌]
요소를 들여다보면 결국 서류 기록물 중 **학생부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 보니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학생부 작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게 되었다.

특히 교과와 비교과로 이루어진 학생부작성에 있어 쉽게 올리기 힘든 교과 성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이 쉽지 않고 기록이 자유로운 비교과기록을 어떻게 더 많이 그리고 잘 작성하느냐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그럴수록 학생부 작성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과 불신은 높아지고, 학생부작성을 담당하는 학교와 현장의 교사들은 안팎으로 학생부 작성에 대한 다양한 압박에 시달리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종합전형에 위력을 발휘하는 좋은 학생부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잘 기록된 학생부'가 아닌 '**잘 활동한 학생**'에 집중해야 만들어지는 것이다.

학생부는 학생의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기록물이다.

☞ **'학생의 활동'이 바로 종합전형에서 집중해야 하는, 평가에 있어서 가장 급한 핵심 요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성평가를 표방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기록을 하는데 있어 학생이 스스로 지적호기심과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을 꾸며내어 쓸 수는 없는 것이다.

학생부 종합전형 연구는 학생부 자체에 대한 연구를 넘어 이제 그 **학생부의 진정성을 어떻게 잘 검증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갖고 발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이 스스로 호기심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도전하고, 스스로 열정을 가지는 것이다.**

스스로의 진정성이 없는 활동을 기반으로 기록된 학생부는 아무리 내용이 풍성해도, 아무리 그럴 듯한 스펙으로 무장을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학생부 비교과 기록은 **'학생이 스스로 도전한 진정성 있는 활동'에 그 핵심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긴 설명이 필요했던 이유는 **비교과 활동이라는 것이 딱 이것만 하면 된다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학생의 활동은 **스스로 의해서 계속 새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활동들을 스스로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을까?

학생부 비교과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큰 원칙

1.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찾아볼 것

비교과 활동을 찾을 때 **자신의 진로와 연결** 짓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바로 모든 활동의 호기심과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관심을 가진 과목은 선생님도 멋있고, 수업도 재미있는 것처럼 **자신이 관심을 가진 분야를 일찍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스스로 활동할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문제는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학생이 많고, 많은 학생들이 진로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해 한다는 점이다.

필자 역시 고등학생 때부터 교사의 꿈을 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한다.

그렇다고 마냥 '나는 꿈이 없어요' 라고 빈둥거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 **끼를 통해 꿈을 찾는 것, 자신이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는 작은 활동에서부터 진로에 대한 실마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모님을 비롯한 일가친척 또는 주변 어른들의 직업, 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하는 모든 직업이 탐구의 대상이다.

우리는 진로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호기심만 갖는다면 주변 사람의 직업과 진로에 대해 알아보기에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간단한 인터넷 검색이나 무료 상담을 그리고 독서를 통해 직업과 진로의 세계를 간접으로 경험할 기회가 충분히 많기 때문이다.

현재 자신의 진로가 명확하지 않다면 이것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변의 직업이나 진로를 탐구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로 진정성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

특히 **방학을 이용해 평소에 방문해 보고 싶었던 곳을 직접 찾아가거나 체험하는 것 자체가 좋은 비교과 활동**이 된다.

외부 체험활동은 학생부에 기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자기소개서에는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다면 무엇이든 훌륭한 활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호기심을 가지고 진로탐색 활동을 하다 보면 언젠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튼튼한 동기가 생기게 될 것이다.

2. 지적 호기심을 가질 것

진로도 중요한 탐구 대상이지만 학생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은 기본적인 학업역량, 즉 지적역량**이다.

학업역량 평가요소 중 가장 쉬운 교과 성적은 이미 교과학습발달사항에 숫자로 명확하게 표시돼 있다.

그러나 비교과영역은 표시된 성적의 숫자가 과연 실제로 어떤 동기와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추가로 요구한다.

학업역량 중 학습의 동기와 과정 부분은 대학진학 이후에도 스스로 학습을 설계하고 만들어가야 할 능력인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발전가능성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역량을 인정받는 것은 학습의 동기로서 지적호기심이 평소에 얼마나 작용하고 있는지 증명하는 것이다.

독서실에서 방과 후에 혼자서 오래 앉아 자율학습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자기주도학습이 뛰어나다고 학생부에 기록하고 이에 대해 시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기주도학습과 지적호기심은 이런 것이 아니다.

누군가 시켜서 그리고 주어진 과정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학습이 아니라 **자기가 질문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스스로 탐구의 과정을 설계하고 찾는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는 것이다.**

이런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실제로 공부나 탐구가 즐겁다는 경험을 했다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의 여건상 스스로 주도하는 학습을 경험한 학생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일 것이다.

이 때 질문을 만드는 연습은 이런 역량을 기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질문을 만들려다 보면 주어진 과제나 주제의 기초에 대해 이해하고 공부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자신이 만든 질문을 풀어나가는 과정 자체가 스스로 지적호기심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학교 학습 과정에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과정을 설계하는 습관이 생긴다면, 자연스럽게 지적 호기심과 자기주도적인 탐구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이다.

3. 주어진 환경에서 도전할 활동을 찾을 것

학교마다 서로 다른 비교과 활동 프로그램 때문에 학교를 원망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물론 학교에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학생들은 좀 더 수월하게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역량을 펼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에게 주어진 환경이 다 같을 수는 없다.

따라서 원망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도전할 활동을 찾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학교나 지역사회에 따라 또 자신이 관심 있는 대학에 따라 스스로 조금만 노력을 하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최근 '고교-대학 연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대학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고등학생 참여 프로그램은 공시부터 신청까지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고등학생은 누구라도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다.

최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최소한의 경시대회나 진로, 진학 프로그램 등은 제공하고 있으며, 지자체 단위에서도 많은 종류의 학생 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역시 단순 참여가 아닌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참여의 목적을 탐구해 나간다면 스스로 성장하는 기회로 얼마든지 활용하고 스스로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비교과 활동계획과 실천 의식을 알아보자

학생부의 각 항목을 기준으로 비교과 활동을 구분하다 보면 각각의 활동이 단절된 활동으로 그칠 수 있고 역시 '학생'이 아닌 '기록'에 집중하기 쉽기 때문에 좋은 설명 방법은 아니지만, 현재 학생부 기록이 항목별로 이루어진 만큼 항목에 따른 이해가 쉬운 부분도 있어, 앞에서 큰 틀에서의 의식을 제시하였다면 여기서는 세부적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항목별 의식을 제시해 보려 한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는 시기인 만큼 방학기간을 이용한 활동도 같이 제시해 보았다.

1. 자율 활동, 진로활동 - 학교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되 차별화된 개인별 활동을 만들어 볼 것.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 활동과 진로활동은 주로 학교에서 단체로 이루어진 활동의 기록이다.

소풍, 합성대회, 체육대회, 수학여행, 학생회 활동, 진로적성 검사, 진학, 진로 강좌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부분 단체 프로그램이다 보니 같은 학교의 학생은 오탈까지 똑같이 기록되는 경우도 많다.

학생부를 평가하는 어떤 입학사정관의 경우 평가에 있어서 이런 기록은 오히려 방해만 된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엄청난 시간이 투자되는 학교의 단체 프로그램과 활동에 어떻게 하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학생은 학교의 활동을 자신에 맞게 개별화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은 단체로 운영되지만 참여하는 것은 개인이기 때문에 단체 활동의 범위 안에서 자신만의 호기심과 동기, 계획, 실천 내용을 계획 한다면 그 안에서 개인의 성장을 이루고 또 이를 개별적으로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학급회장을 역임한 사실은 여러 학급별로 한명씩 서술된 중복된 기록이기 때문에 사실 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러나 학급회장으로서 친구들을 위해 무슨 봉사를 할 것인지 스스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한 내용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학급의 수행평가 제출을 앞두고 일주일 전부터 꼼꼼하게 학급 전체 친구들의 숙제를 점검하고 챙기는 학급회장의 구체적인 노력은 자신만의 활동으로 개별화 되어 기록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리더십과 친구들과의 관계성도 더불어 평가 받는 소중한 자료가 될 수도 있다.

2. 동아리활동 -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신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볼 것.

동아리 활동은 학생의 관심분야를 스스로 탐구하고 도전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진로, 전공적합성과도 관련되지만 꼭 관련 전공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지적호기심의 충족이나 취미, 사회봉사 참여 등 다양한 학생의 관심을 적극 표현할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비교과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동아리를 통한 학업에 대한 탐구나 실험, 연구 활동은 지적호기심과 학업역량 그리고 도전정신, 리더십, 잠재력 발전가능성, 인성적인 부분까지 다양한 능력을 평가하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자율동아리 활동의 경우 스스로의 관심분야를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기주도적인 동기와 역량이 강하게 드러난다.

동아리는 친구들과의 협력관계 속에서 운영되므로 협동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다만 함께 하는 활동의 의의성에 묻혀 자신의 개인적인 역할을 중간에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스스로 찾고 자신이 동아리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활동을 해 나가야 한다.

단체 활동이지만 동아리 활동 안에서 자신이 참여한 동기와 개인의 역할을 중심으로 개인역량이 함께 성장 기록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봉사활동 -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만들 것.

봉사활동은 진정성과 꾸준한 노력이 중요하다.

다만 학기 중에는 수업시간을 제외한 봉사활동 시간에 제한이 크기 때문에 주로 주말이나 방학기간을 이용해 봉사활동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봉사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가 많다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사회에 다양하게 기여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다.

☞ 봉사활동도 결국 배움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배우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계획적으로 꾸준히 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반복되는 활동을 통해 배우는 과정에서 나눔의 진정성을 키우고 자신에게 부족한 성품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몇 시간 이상이라는 질문은 결코 중요한 것이 어림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 세부능력 특기사항 - 수업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것.

최근 학생부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세부능력특기사항이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학생부는 교내활동의 기록인데 교내활동 시간의 대부분이 바로 수업이고 수업에 대한 기록이 바로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는 것이다.

덕분에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내용이 학생부 비교과 영역평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고 학생들의 개별적인 수업참여를 기록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실수업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져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교실현장은 강의식 수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실이다.

강의식 수업이라 하더라도 수업시간에 들은 내용에 호기심을 가지고 이를 탐구하여 간단한 보고서나 작성해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력이다.

꼭 선생님이 내준 숙제나 수행평가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질문을 만들고 이를 작성하여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평가를 받는 자기주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활동 중 최근 R&E 라 불리는 소논문 작성이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이는 평가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도 아닐 뿐더러 특히 학생 수준을 벗어난 연구논문은 학생부 기록의 진실성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내용의 깊이만큼 탐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다만 심화된 과제에 대한 관심과 능력이 된다면 과감하게 선택하고 깊이 있게 파고드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과학 II 과목 선택을 권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선택한 인원이 적어서 산술적인 내신등급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도전을 해 배움을 얻었다면 성적의 숫자보다 더 높은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비교과 평가의 방법이다.

다양한 비교과후학교 수업의 선택도 마찬가지로 해당한다.

심화된 내용의 수업이나 교양수업 등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은 학생의 다양한 재능과 노력, 관심을 보여주는 기회이다.

스포츠나 예능 활동을 통해 취미를 기르고 다방면의 능력을 기르는 것은 학습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또한 이런 노력을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스스로의 유능감을 높이면서 사회에 기여할 미래의 인재로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5. 독서활동 상황 - 독서목록을 작성하여 꾸준히 책을 읽을 것.

독서는 학생부의 모든 영역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도구가 되는 영역이다.

지적호기심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독서만한 것이 없고, 진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동기 역시 독서만한 것이 없다.

학업역량을 향상시키게 된 계기로 독서만한 것이 없으며, 수업시간에 호기심을 가진 탐구활동을 채워나가는 방법도 독서만한 것이 없다.

독서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의 동기를 제공하고 해결책을 제공하는 그야말로 무한한 힘을 가진 도구이다.

그렇다면 독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 ▷ 첫째로 자신의 진로나 호기심을 가진 분야의 책은 당연히 읽어야 할 것이다.
- ▷ 둘째는 다양한 진로탐색과 교양의 함양을 위해 다양한 장르의 책을 골고루 읽으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 ▷ 셋째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책을 찾아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신의 독서역량을 높게 평가받기 위해 수준에 맞지 않는 어려운 책을 독서활동 내용에 기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면접에서 단 한 번의 질문만으로도 거짓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무모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독서는 습관이고 연습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평소 자신이 관심을 가졌던 책이나 관심분야의 책 목록을 스스로 작성해 보고 꾸준히 읽는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 책을 읽는 동기는 기록이 아닌 지적호기심에 대한 충족이 되어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6. 방학기간을 활용한 비교과활동에 참여하라.

각 대학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해 개최하는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이 있다.

모의 종합전형에 지원해 보는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전공 강의를 통해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관심 있거나 집에서 가까운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접할 수도 있고 각 고등학교에 공문형식으로 안내가 되기 때문에 가까운 선생님을 통해서도 정보를 접할 방법이 있을 것이다.

또 EBS 입시정보의 입시뉴스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대학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중 UAP과정(University-level Program)이 있다.

이를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이라 하는데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학년에 구분 없이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대학생활을 미리 경험해보고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진로를 확인해보며 심화된 대학수준의 강의를 통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이수한 학점을 추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는 제도이다.

전년도까지는 학생부에 이수한 내용을 누구나 기록할 수 있었으나 이제 고교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된 경우에만 기록할 수 있도록 제한된 부분이 아쉽지만, 자기소개서에는 서술이 가능하므로 자신에게 필요한 과정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바란다.

또 특기자 전형에 도전하는 학생의 경우 방학을 이용하여 공인어학성적이나 외부 경시대회 등에 도전할 기회를 보다 여유롭게 계획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7. 인성은 매사에 기초가 되는 역량이다.

인성은 학생부 비교과 전체 영역에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단순 노력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매사에 자신에 대한 꾸준한 성찰을 게을리 하지 말고 자신의 성격에서 부족한 부분을 알아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인성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서로 원만하고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자신이 먼저 양보하고 자신이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는다면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가는 길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 만큼 남에게 인정받고 이해받고자 하는 만큼 내가 먼저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필요하다. 때로는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희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꾸준히 연습해야 한다.

학생부 비교과 활동을 위한 조언은 아무리 나열해도 끝이 없을 만큼 많은 사례와 방법이 있다.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했는데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은 부모님이나 학원에서 계획을 세워주는 등 떠미는 활동이 아니라 학교에서 스스로 계획하고 참여하는 연습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비교과를 중심으로 이야기 하다 보니 활동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와 비교과가 서로 연계된 연장선에서 평가되는 전형인 만큼 교과에 대한 기본 실력을 쌓은 후에 비교과 활동을 이어서 한다는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과가 비교과 활동을 받쳐주고 또 비교과활동이 교과를 받쳐주는 노력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기록된 말 몇 마디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다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매 순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틀을 깨고 성장하려는 다부진 노력을 하다 보면 단순한 글자의 기록이 아닌 빛나는 자신의 실제 모습이 평가자인 입학사정관의 눈앞에 당당히 드러날 수 있게 될 것이다. (EBS 입시칼럼)



『대학이 말하는 학생부종합전형』

□ 서강대·숙명여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

□ 대학의 학생부·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평가 방침



통통통 대입포럼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추가지원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건양대 등 11개 대학 입학관계자들이 지역 거점 도시를 돌며 대입 정보를 공유하고 토의하는 자리. 5일 열린 서울·경기·강원 권역 포럼을 시작으로, 6일에는 영남, 23일 호남·제주, 24일 충청·세종 순으로 1월 한 달 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5일 열린 포럼에는 서울·경기·강원 지역 중·고교 교사 200여 명이 참가해 △대학의 학생선발 방향과 학생부종합전형 △대학의 학생부·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평가 방침에 관한 대학 입학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대학은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를 어떻게 평가할까!! 서강대·숙명여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의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평가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 중앙대

“학생부, 동아리 내용을 자율이나 진로에 나눠 쓰지 말 것”

Q. 학생부종합전형을 시행하면서 어떤 부분의 변화가 눈에 띄는가?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의 변화는 어떤가?

A. 장준호 중앙대 입학사정관:

2년 전부터 변화가 시작됐는데, 특히 올해의 경우 학생부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변화가 컸다. 수업에서 보였던 수행평가, 개인적인 발표 등 이런 기록들이 구체화됐다.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동아리 활동을 적는 기록란이 500자로 제한돼 있어서 동아리 이야기를 자율 활동과 진로 활동에 나눠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평가자 입장에서는 곤란하다. 자율 활동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으려고 하는데 뜬금없이 동아리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때문. 수상실적은 학생들마다 양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많은 교내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학생들이 과도하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많은 교내대회에 참가하느라 어려움을 겪을 학생들을 위해 대학이 평가기준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본다. 자기소개서는 잘 쓴 자기소개서가 너무 많다. 다만, 너무 어렵게 쓰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생명공학과를 희망하는 친구가 교수도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쓰는 경우도 있다. 쉽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추천서는 평가자 입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류에서 확인할 수 없는 학생의 진가를 확인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추천서가 부담스럽더라도 선생님들이 예를 써 주셨으면 좋겠다. 중앙대는 추천서를 읽을 생각이 없다.

□ 서강대

“내신 등급만으로 일도영단하진 않는다”

Q. 학생부 10개의 항목 중 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활용하는 항목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얘기해달라.

A. 강경진 서강대 입학사정관:

교과 성적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구성된 ‘교과학습발달상황’을 가장 중점적으로 본다. 그 다음에 함께 주로 보는 것이 수상경력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이다. ‘내신 몇 등급이면 지원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내신으로 선을 그으면 안 된다. 전 과목을 잘하는 학생도 있고, 특정 과목만 뛰어난 학생도 있다. 처음엔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3년 내내 성적이 오른 학생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을 내신 등급 상의 숫자만으로 일도영단하진 않는다. 특정 분야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드러난다면 몇 등급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 노력은 수상경력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을 통해 평가한다.

내신 성적은 좋지 않지만 수학경시대회에서 때론 상을 타는 학생이 있다. 이것만 보고는 이 학생이 수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동아리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함께 본다면 ‘이 학생은 내신 성적은 조금 떨어지지만 수학을 좋아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평가하게 된다. 서강대는 독서를 강조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독서를 권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동아리활동을 하든 자율 활동을 하든 어떤 노력을 할 때에는 독서를 하게 돼 있다. 모든 활동에 독서가 녹아있다고 생각한다.

□ 한국외대

“방송반 했다고 신문방송학과 전공 적합성?”

NO! 넓게 봐라”

Q. 학생부에서 학생 전공 적합성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A. 이석록 한국외대 입학사정관 실장: 전공적합성이란 ‘학생이 특정 학과에 진학했을 때 학업을 잘 수행할 소양을 갖추고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다. 즉, 학생의 전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살펴보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열정을 따져본다. 그런데, 사학과를 희망한다면,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고교에서 할 수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어과와 몽골어과 지망 학생들은 고교 활동에서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다채롭게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건 어떻게 평가할까? 넓게 보는 것이다. 외국어 잠재력, 글로벌 소양 등을 평가한다. 비교과와 교과를 구분하지 않고 학생부 내의 교과목의 성취도, 교과 전공의 경험과 고민, 관심, 노력을 살핀다. 관심분야에 대해 얼마나 다양하고 깊이 있는 활동을 몰입도 있게 했는지를 폭넓게 본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것은 교내 방송반 활동을 했다고 해서 신문방송학과에 전공 적합성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신문방송학과는 ‘사회과학적 역량’ ‘사회에 대한 넓은 관심’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연세대

“창의적체험활동, 항목별 경중은 없다”

Q.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활동은 무엇이고

이를 평가에 반영할 때 어려움은 무엇인가? 바람직한 창의적 체험활동 방향은 무엇인가?

A. 박정선 연세대 책임입학사정관: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연세대는 학생부에서 학생이 갖고 있는 ‘다양성’ ‘깊이’ ‘열정’을 엿보려하는데, 우리가 찾는 이런 것들이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 이 네 가지 중 어디에 담겨있는지를 본다. 어떤 영역이 다른 영역보다 중요하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다. 방송P를 하고 싶은 학생이 언론정보학과가 아닌 사회과학을 지원하거나, 스포츠크스터를 꿈꾸는 학생이 역시 언론정보학과가 아닌 스포츠과학을 지원하는 경우. 이럴 때는 정말 더 깊이 있는 학문을 배우고 싶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 서강대

“소논문 주제와 내용, 중요하지 않아”

Q. 요즘 학교 중심의 과제연구, 소논문(R&E)을 준비하는 학교가 많다. 하지만 일부 대학들은 소논문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대학은 과제연구, 소논문을 어떻게 평가에 반영하는가?

A. 강경진 서강대 입학사정관: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에 맞도록 R&E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소논문의 주제와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소논문을 쓰면서 자신이 무엇을 공부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무슨 책을 읽었고 교과서와 달랐던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 어떤 내용을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쓰기 위해 어떤 자세와 노력을 보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화학과 가려는데 물리 공부한 것이 도움이 안 될까? 경영학과에 가려면 반드시 수학, 경영 이런 것만 해야 할까? 절대 아니다.

□속명여대

“독서량은 중요하지 않다”

Q. 독서활동이 서류 및 평가에서 비중이 높다고 하는데 평가 반영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올해부터 독서활동상황에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재되도록 변경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A. 김일현 속명여대 입학팀장: 모집단위에 따라 접근하는 방법은 많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책을 읽되, 진로와 전공적합성에 맞는 책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독서활동은 면접 때 많이 활용한다. 서류에 꼭 나열된 책을 보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독서의 양, 책의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의사소통능력과 공감능력, 창의력을 키웠는지 보는 것이다.

□한국외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 학생의 발전가능성 엿볼 수 있어”

Q.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은 어떻게 평가하나?

A. 이석록 한국외대 입학사정관 실장: 인성뿐 아니라 자기주도적 학업역량도 이 부분에서 본다. 학생부 앞부분에선 드러나 있지 않지만 보완하거나 해명할 부분이 이곳에 적혀있다면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학생의 우수성을 파악할 수 있다. 전공과 관련된 역량, 학업과 관련된 역량, 학생부에서 찾을 수 없는 근거들을 여기에 적어준다면 학생의 발전가능성도 이 부분에서 평가할 수 있다.

□연세대, 중앙대 “추천서, 학생부 평가에서 중요한 자료”

Q. 대학이 생각하는 추천서의 의미는 무엇인가?

A. 장준호 중앙대 입학사정관: 선생님의 권한이 가장 많이 부여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학생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원한다. 추천서는 우리가 평가한 것이 선생님이 보는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우리가 학생부를 보면서 의구심이 들 때 방향을 제시해주는 경우도 있다. 추천서는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는 유일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A. 박정선 연세대 책임입학사정관: 연세대는 서류 평가를 할 때 비교과, 자기소개서, 추천서, 교과 성적 순서로 평가하는데 이때 추천서는 대학의 평가와 교사의 평가를 비교해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먼저 우리가 이 학생의 모습을 그려보고, 추천서를 보며 확신을 하거나 다시 한 번 고민해보는 것이다. 선생님의 필력을 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다. 그 학생이 무슨 공부를 했고 전공으로 하려는 과목을 왜 선택하게 됐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보였는지 적어주는 것이 좋다. 평균 내신이 몇 등급이고 무슨 상을 받았고 이런 양에 나온 이야기를 반복하는 추천서는 좋지 않다. 이런 추천서를 보면 ‘선생님은 이 학생에 대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중앙대가 추천서를 없앨 생각이 없다고 밝혔는데, 연세대의 입장도 이와 같다. 학생부나 자소서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선생님만의 관찰을 써 달라.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한국외대 “자소서, 심화된 내용 적어야”

Q.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A. 이석록 한국외대 입학사정관 실장: 잘 쓴 자기소개서는 심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심도 있는 교과 활동, 깊이 있는 경험을 통해서 학업에 있어 어떤 노력을 했고,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성찰한 자기소개서는 매우 잘 쓴 자기소개서다. 활동의 내용이 학생부와 연결고리를 갖고 있으면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학생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문장과 단어만 다르게 해서 다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좋지 않다. 동아리 활동을 했다면, 내가 이것을 왜 했고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했으며 무엇이 도움이 됐고 대학에서 학업 하는데 있어 그 활동들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까지 작성한다면 그 학생의 발전 가능성 엿볼 수 있다.

□중앙대 “자소서 1, 2번 문항이 가장 중요”

Q. 자소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변별력이 떨어지는 문항은 무엇인가?

A. 장준호 중앙대 입학사정관: 가장 중요한 문항은 1번과 2번 문항이다. 이 문항이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3번 문항이 변별력이 가장 떨어진다. 나눔과 배려에 대한 가치관과 생각들을 표현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많이 어색하고 서툰 것 같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진솔하게 풀어냈으면 좋겠다. 눈에 보이는 행동을 쓰려고 많이 하는데 추상적이어도 좋으니 나눔과 배려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길 바란다.

□연세대 “자소서 진위 여부, 면접에서 드러나”

Q. 자소서의 진위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A. 박정선 연세대 책임입학사정관: 읽으면서 궁금한 것을 메모한다. 해당 학생이 면접에 올라오는 경우 면접을 보는 평가자에게 전달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자기소개서는 단순히 성적으로는 엿볼 수 없는, 학생의 경험한 것에 대한 가치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다. 자소서는 학생으로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지원자가 자신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다. 스펙위주의 접근이 아니라 하나의 활동을 쓰더라도 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동아 이연상 기자

2018 대입 위한 3월 학평 이후 수험생 입시전략 방법



3월 학력평가는 수능을 위한 연습시험이다. 이를 통해 취약 과목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모색하며, 향후 영역별 학습 균형을 잡아나가야 한다. 매 가스타디가 2018 대입 성공을 위한 3월 학평 이후 수험생 입시전략을 제시했다.

■ 3월 학력평가를 주력 전형 결정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라

대입의 전형 요소 중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앞으로 주력할 전형을 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3월에 자신의 주력 전형을 정해오면 앞으로의 학습 및 대입 준비 방향을 분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1월 모의평가 이후 자신의 주력 전형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 수 있으며, 4월 모의평가 이후 목표 대학의 수시 원서 접수까지 흔들리지 않고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3월 학력평가 점수를 통해 자신이 어떤 전형에 유리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주력 전형은 학평 점수와 내신 성적을 비교해 결정하라

주력 전형을 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가진 학력평가 점수와 내신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체크해 봐야 한다. 만약 자신이 학력평가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내신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의 레벨이 더 높다면 학생부 전형 위주, 학력평가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의 레벨이 더 높다면 논술 혹은 정시 전형 위주의 대입 전략을 세워야 한다.

▶ 주력 전형이 학생부 위주 전형인 수험생

3학년 1학기 내신 관리에 올인, 수능은 전략 영역을 정해 집중 관리

학생부 위주 전형이 주력 전형이라면 무엇보다도 3학년 1학기 내신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교과 전형은 물론이거니와 종합 전형도 내신의 반영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반영 비율이 높은 3학년 1학기 내신을 최상의 성적으로 마무리해야만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7월까지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우선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학생부 전형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교과 전형은 물론 상위권 대학의 종합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신 준비 기간이 아닌 때에는 수능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특히 내신시험이 모두 끝난 7월 기말고사 이후에는 자신의 목표 대학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부 위주 전형에 합격 가능성이 높은 학생이라면 우선 2~3개의 전략 영역을 정하여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정시까지 대비해 나머지 영역도 꼼꼼히 대비하는 것이 좋다. 단, 영어 영역이 2018학년도부터 절대 평가로 전환되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강화되거나 2개 영역에서 3개 영역 반영으로 변경된 대학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 주력 전형이 논술 혹은 정시 전형인 수험생

수능 학습에 집중, 내신 관리는 3~4등급 이내 관리를 목표로

학생부 위주 전형에 강점이 없어 논술 혹은 정시 전형에 주력한다면 11월까지 수능 성적 향상이 제1목표가 되어야 한다.

정시의 수능 전형은 물론 논술 전형도 비중있게 준비한다면 틈이 논술 학습도 병행하는 것이 좋다. 내신도 3~4등급 이내로 목표를 정해야 한다.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부분 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생부 반영 비중이 낮은 편이지만, 5등급 이하로 내려간다면 등급 간 점수 차가 커지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는 영어 영역이 절대 평가로 전환되면서 대부분 대학들이 영어의 반영 비중을 감소시켰다. 대학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10~20%를 반영한다. 반영 비율 외에도 등급 간 점수 차를 고려하면 영어의 영향력이 큰 대학과 아닌 대학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이 외에도 정시와 함께 논술 전형도 비중있게 준비한다면 틈이 논술 학습도 병행하는 것이 좋다. 내신도 3~4등급 이내로 목표를 정해야 한다.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부분 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생부 반영 비중이 낮은 편이지만, 5등급 이하로 내려간다면 등급 간 점수 차가 커지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신에서 불리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3~4등급 이내로는 내신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 대학별로 내신 반영 과목 및 과목 수가 다르므로 목표 대학이 있다면 이를 확인하고 이에 맞춰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기사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28>



성공적인 수험 생활 시작을 위한

시기별 입시전략 및 연간계획 로드맵

입시정보 모지않게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것은 자신의 현실에 맞는 실행 가능한 연간 학습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계획 수립은 목표와 학습 수준에 따라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으나 큰 틀에서 꼭 점검해야 할 것들은 같으므로 2018학년도 대입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어떤 지원전략과 학습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은지를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봐야 한다. 아래의 시기별 학습전략을 참고로 자신만의 입시계획을 세우도록 하자.

구분	시기별대수	입시전략	학습전략
3~4월	- 3월/4월 학력평가 - 중간고사	- 2018 입시 주요사항 분석 정보확인 - 학/모교결과에 의한 지원가능 대학/학과 확인	자기진단과 설계 - 강/약점 분석 및 보완 - 내신 대비학습 - EBS 골고루 학습
5~6월	- 모의평가 - 기말고사	- 6월 평가일 모의평가 - 모교결과에 의한 수시/정시 선택	6월 평가원을 통한 재검토와 디지그 학습 - 수능 출제 경향 파악 - 영영명 학력 유형 분석 - 누적학습에 대한 총정리
7~8월	- 여름방학 - 수능일서접수	- 수시지원전략 점검 - 서류 평가 준비	- D-100 계획 수립 - 교과목 개념원성/EBS 1회독 - 미흡한 단원 확인
9월	- 9월 모의평가 - 수시원서 접수	- 수시지원전략 점검 - 모교결과에 의한 지원가능 대학/학과 확인	- 6/9모교 오답노트 만들거 - 고난도 문제들이 본격시작 - EBS 심화 학습
10~11월	- 대학별고사 - 수능시책	- 수능 시험 및 기출문제 분석 - 정시 주요사항 정보 확인	- 수능 실전연습 - EBS 고교 총정리 - 컨디션 및 건강관리
12~1월	- 수능성적발표 - 대학별고사 - 원서접수	- 정시 원서 접수 - 대학별 고사 준비	- 대학별 고사 파이널 준비

상반기 주요 포인트 학생부와 모의고사의 전반적인 점검, 그에 따른 유리한 전형 선택

3~4월 (자기진단과 설계)	5~6월 (발전 학습 및 재검토)
모의평가 결과를 통한 자기진단이 필요한 시기이다. 모의평가 결과와 함께 과목별 취약부분을 파악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오답노트를 만들어보고 개념학습을 반복하여 개념 이해에 학습 포인트를 두면서 개념 적용 능력을 키우기 위한 문제도 함께 풀어 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목표대학의 전형을 숙지하여 반영 영역과 가중치 여부 등을 체크해 원만 대학의 반영 영역 위주로 학습계획을 세워 전략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수능시험의 문제 유형과 문제 구성 양상을 터득하기 위해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다.	수시와 정시에 대한 발전된 고민을 해보는 시기로 재학생들은 중간고사 관리 및 수능 병행 학습전략을 세워야 한다.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과 내용을 관련 수능 기출문제를 통해 확인한다. 수능까지 병행하는 학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수시에서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논술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정복하는 시기이다. 각 대학의 논술모의고사 등을 통해 그 해 논술 경향을 파악하는 등 기본 준비를 해두면 좋다. 의미가 큰 6월 평가일 시험 후에는 성적 분석을 통해 본인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목표 대학의 지원 가능성을 검토해 연간 학습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취약 영역에 대한 집중 학습을 포함하여 오답노트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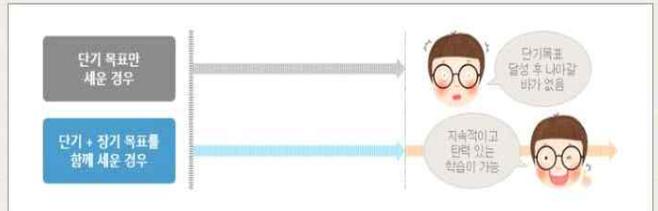
상반기 주요 포인트 현실적인 전형 선택과, 모집시기별로 자신의 준비 전략수립필요

7~8월 (전략적 학습과 수시 지원 결정)	9월~수능 (수능 마무리 학습 및 실전 적응력 강화)
수시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며 모의평가 성적과 학생부 성적, 대학별 고사 준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더불어 마지막 집중도 필요한 시기로 목표 대학의 입시 요강을 통해 본인의 취약부분을 파악한 후 전략적인 공부 방법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6월 모의평가 결과물 토대로 자신의 강점을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수능 전략 과목과 학습 방향을 설정하고 공부할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전 문제 풀이와 함께 취약 영역을 총정리할 시기다. 오답노트 위주의 취약 영역 보완과 수능실전 감각 익히기에 집중한다. 그리고 수능 전 건강관리의 수능시험 당일 최상의 컨디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

계획 수립 시 주의해야 할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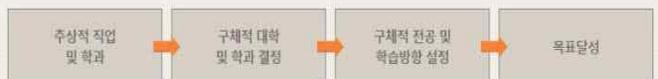
▶ 장기목표와 단기목표의 구체적 설정

단계별로 구체적인 기한을 설정하고 그 기한까지 완수한다는 생각으로 계획을 지켜나가기 한다.



▶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 설정

근시안적인 계획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고1을 위한 동아리활동 가이드

출처: 대학저널



적성·진로만큼이나 '자기주도적' 활동도 중요

최근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동아리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동아리활동이 교내 활동 가운데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선택해 꾸준히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학교생활기록부 내 '창의적 체험 활동' 란에 자율·봉사·진로 활동과 함께 기록된다. <대학저널>이 '나를 성장시켜주는 동아리활동 가이드'를 소개한다.

동아리의 종류는?

먼저 동아리 활동이란 학생들의 공통 관심사와 동일한 취미, 특기, 재능, 소질 등을 지닌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자발적인 참여와 운영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창의적으로 표출해내는 집단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은 동아리담당 교사나 담임교사가 학생부에 기입해준다.

동아리는 학교의 공식 동아리와 자율동아리, 학교스포츠클럽관련활동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좀 더 세분하면 1개 학교가 아닌 여러 학교와 공동의 활동을 전개하는 '연합동아리', 지역학교의 특성을 살린 '지역연계형 동아리', '자연계와 인문계 융합동아리' 등 성격과 활동에 따라서도 여러 동아리로 구분할 수 있다.

◎ 동아리 종류

구분	종류
형태	공식동아리, 자율동아리, 학교스포츠클럽관련활동 등
활동	연합동아리, 지역연계형 동아리, 융합동아리 등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있는 동아리 활동과 서술 사례

동아리 활동	23	(생명과학탐구반)(23시간) 실험 설계 능력과 데이터 분석 능력이 우수하고, 실험 장비에 대한 기본 지식이 풍부하여 평소 부원들에게 과학 실험 장비의 조작이 서툰 부원들에게 자신의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사용법을 안내하고, 분리 시료의 농도 조절이 중요한 전기영 실험에서 보동자으로 참여하여 가장 오차가 작은 실험 결과를 도출함.
--------	----	---

자율동아리란?

자율동아리란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팀을 꾸려서 지도 교사를 위촉하고 학교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동아리 설립을 건의해서 만들어지는 동아리이다. 학교에 비슷한 주제로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가 이미 있더라도 새로운 동아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자율동아리는 공식동아리나 연계동아리보다는 동아리 활동 범위나 소재가 넓고 자유로운 편이다. 또 학생들이 스스로 호기심과 흥미에 따라서 만든 조직이라서 참여율도 높은 장점이 있다. 공식동아리 신입생 선발에 합격하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 그 분야에 대한 활동을 꼭 해보고 싶다면 친구들과 자율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서울 A자율형사립고의 자율동아리 사례

연번	부서명	인원	반장
1	SOCAL(화학생물동아리)	20	홀길동
2	아스클레피오스(의학생물동아리)	22	이순신
3	JLP(컴퓨터프로그램개발동아리)	20	김유신
4	CAI(생명과학동아리)	11	강감찬
5	SED(시사경제동아리)	12	곽재우
6	모의투자동아리	16	임경엽

◎ 자율동아리 학생부 서술 사례

동아리	(E2Y(자율))과학 환경동아리 E2Y(Protection of Earth Environment for Youth)에서 과학 관련 기관으로 공동실 험실습관을 방문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 재료실습, 기기분석 등 중요 기자재 체험 활동을 함(2015.05.03.). 동아리 부원들의 관심 분야 주제에 대해 서로 연구와 토론을 진행하여 '인간 중심의 기술, 적정 기술', '지구 온난화와 전염병'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함. 또한 개인적인 진로분야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으로 '바이러스의 공포'란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동아리 부원들에게 발표함.
-----	---

동아리선택은 어떻게 할까?

자신이 원하는 동아리에 가입원서를 내도 경쟁률이 높아서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이유로 원치 않는 동아리, 진로희망과는 거리가 먼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해서 대학진학에 불이익을 받을까?

그렇지 않다. 대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호기심과 소질, 진로희망과의 연관성 등을 골고루 고려해 동아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동아리의 규모나 외형, 활동내용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 또한 반드시 동아리 활동을 진로 목표에 맞출 필요도 없다. 기자가 꿈이라고 '신문반', '방송부', 로봇공학자가 꿈이라고 '로봇동아리'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너무 많은 학생이 동아리 활동을 진로 목표와 연결해야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학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진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소질 외에도 ▲리더십·협동능력 ▲봉사정신 ▲창의성 등 다양한 능력을 함께 평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 의대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한 학생은 밴드 부에서 드럼을 쳤지만 교내 공연을 기획한 활동을 통해 '리더십' 영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즉 대학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학생의 성장과정'에 더 관심이 많다. 또 다른 대학은 교내 발명동아리에서 젓가락과 포크를 결합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법과 국을 동시에 조리할 수 있는 주방도구 등을 개발한 학생을 건축학과에 합격시켰다. 발명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의 창의성을 높게 평가했고 건축물을 짓는 방법을 고민하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놓아야 되는 건축학과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동아리도 고등학교 때 자신이 가진 흥미나 소질을 기르고 심화시키는 단체지만 그 속에서 '자기주도적' 활동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동아리도 큰 의미가 없음을 의미한다. 동아리활동을 통한 '성장'과 '성숙'에 집중하되, 작은 자율동아리라도 과정과 결과 측면에서 노력한다면 일시적 활용뿐만 아니라 학생의 고교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이다.

◎ 동아리활동 평가요소

구분	상세
동아리활동 평가요소	전공적합성, 자기주도성, 리더십·협동능력, 봉사정신, 창의성·잠재력

'201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안 변경안 분석'

조선에듀(조근주의 열정스토리) 2017.02.20. 10:28

2017학년도를 맞아 교육부가 “학생부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일겠다”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생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학교와 교사의 인식, 능력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을 줄여보겠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2016년도 특목고와 자사고 입시에서 중학 3학년의 독서활동기록평가를 같은 이유로 배제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나이스 시스템 상에서 학생부 작성 주체를 명확하게 해서, 부정기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경안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던 학생부 항목 작성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제시한데 의의를 두면 좋을 듯 합니다. 실제로 교과세부특기나 독서활동기록 작성 시 해당 교과 선생님은 담임교사에게, 담임은 해당교과 선생님 부재를 이유로 작성을 미루거나 회피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좀 나아질까 기대해봅니다만, 업무과중을 이유로 교과세부특기를 1~2등급 학생으로 한정하고 작성한다거나, 독서활동기록을 써오라고 하는 경우, 혹은 아예 같은 내용을 ‘복붙(ㄷㄷ + ㄷㄷ V)’하는 사례가 더 많아질까 우려도 됩니다.

이번 학생부 기재 개선안의 목적과 배경에는 분명히 ‘학생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관찰의 기록’이라는 과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세부특기 기재 사례 등을 다룬 교과세부특기 3편 ‘너의 이름은 교과세부특기’는 다음 주로 미루고 ‘학생부 기재 변경방안’을 먼저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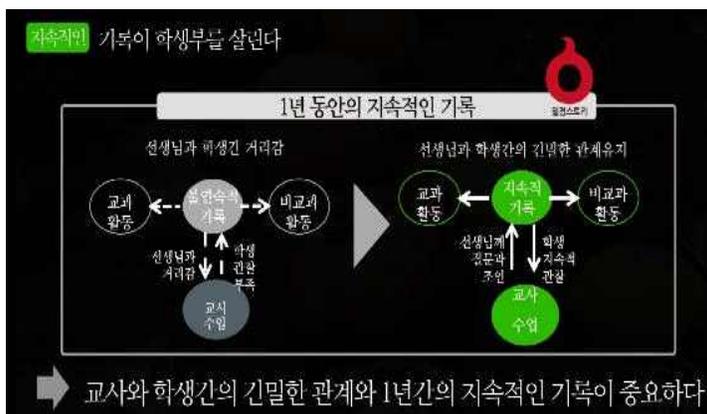


표1) 학생부기록원칙

2017년도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방법이 변경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핵심 KE4인 학생부 작성 방법이 변경된다는 것은 앞으로 **학생부를 평가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올해 학생부 기재 방식이 어떻게 변화되고,
- 앞으로 어떻게 학생부를 정리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2017년 학생부 기재 방식 변화>

학생부 기재 방식이 ‘**학생중심**’으로 변화됩니다. **결과 중심적인 교사 평가에서 이제는 과정 중심으로 변화합니다.** 학생들의 성장과정을 교사가 관찰하여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요.

학생부 항목	개선 사항
4. 수상경력	교내대회 가이드라인 마련. 사전 등록된 교내상만 기재. 수상 경력 란에만 기재
6. 진로희망사항	‘학부모 진로희망’란과 학생 성장과정에서 수시로 변화할 수 있는 ‘특기 또는 흥미’란 삭제
8. 교과세부특기	“ 학습과정 및 성취도 중심 기록 ” “방과후활동 내용은 강좌명(주요내용)과 이수시간만을 기재한다
9. 독서활동사항	교사의 관찰·확인에 한계가 있는 독서 성향 등은 기재하지 않고,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재
중요 사항	○ 교과세부특기 중요성 심화 ○ 교과세부특기란에 독서활동을 활용할 것

표2) 학생부 항목별 주요개선사항

○ 혼령개정: 학생부 항목별 입력 및 정정 주체 명시

묵시적으로 지금까지 작성해오던 관행을 아재는 학생부 항목별로 작성하는 주체별로 했습니다.

<학생부 항목별 입력 주체 명시>

항목	혼령상 입력 주체	
	현행	개정안
진로희망사항	없음	담임교사
창체 자율·동아리·봉사 특기사항	없음	자율활동 및 봉사활동(담임교사), 동아리활동(지도교사)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없음	교과담당교사, 담임교사 (방과후학교의 경우 교과담당 또는 담임교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없음	담임교사

표3) 학생부 항목별 입력주체

동아리는 동아리 선생님이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동아리 활동이 중요해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학생 개개인의 동아리 활동을 꾸준히 지켜 보고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래 표를 볼까요?

▶ 학생부 항목별 입력주체 2018'

[학교 중심 학생부의 구조]



표4) 학생부 항목별 입력주체와 학생중심 학생부 구조도

○ 학생부 기재 방식 개선안 주요사항을 항목별 정리

학생부 4번. 수상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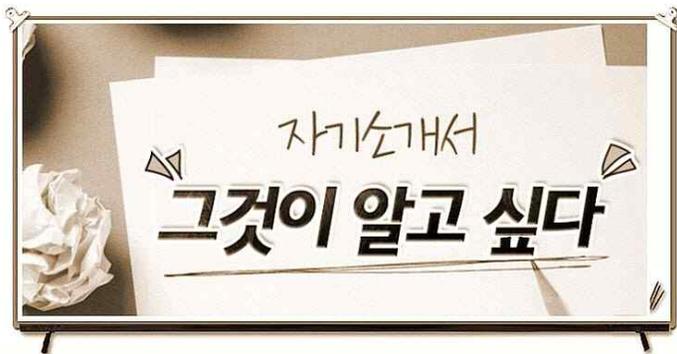
4. 수상경력

구분	수상명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	참가대상(참가인원)
교내상					

표5. 수상경력: 교내대회 가이드라인 마련. 사전 등록된 교내상만 기재. 수상경력란에만 기록

학종이 대세가 되면서 학교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다보니 껍데기만 흉내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소논문'같이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대회를 열어서 사교육을 조장하거나 심지어 '부모에게 편지쓰기 대회' 등 목적이 불분명한 상을 신설해 시상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교내수상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군요.

즉, 연초 계획되어 사전 등록된 교내대회의 수상만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별로 특색 있는 대회를 만드는 좋은 의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 있지요.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함께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자료이다. 자기소개서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에 나타나지 않는 성장 배경, 지원 동기 및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과정, 학업 및 진로 계획, 교과 및 비교과 활동에 참여한 지원자의 경위와 의미, 지원자의 인성 등 개인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는 학생부 내용과 연계해 지원자의 주관적 판단 아래 서술해야 한다.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준비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학생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지원자는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런 성찰을 토대로 하나하나 상세히 사례를 들어가며 작성하는 것이 자기소개서 작성의 두 번째 단계이다. 작성시에는,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의 문항이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를 주의해서 살펴야 한다.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작성하다 보면 문항이 요구하는 바와 다른 방향으로 작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기소개서 작성의 마지막 단계는 문항 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하나의 글처럼 일맥상통하게 작성되었는지, 또는 답변이 중복하여 작성되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자기소개서의 문항이 각기 다른 의미를 두고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학생의 개인적인 성장과정이 한 눈에 볼 수 있어야 하므로, 그렇게 작성됐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수시모집 자기소개서는 공통문항 3개와 자율문항 1개 등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정한 공통된 양식으로 구성돼 있다. 각 문항별로 1,000~1,500자 이내의 제한된 분량에 본인의 강점과 그 근거를 잘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의 각 문항별 주요 평가역량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한 후 작성하는 것이 좋다.

한양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고 오로지 학생부만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지만, 중앙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대부분의 주요 대학들에서는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막강하다.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자소서 준비가 필요한 수험생들을 위해 메가스터디의 도움으로 자기소개서 공통양식 문항별 작성요령과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자기소개서 공통양식 문항별 작성요령>

[공통문항 1] 고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성장 잠재력을 보여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야

공통문항 1번은 지원자가 고교 교과과정을 통해 배운 것을 바탕으로 대학에 와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다. 재학 기간 중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본인만의 공부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공부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좋다.

교내 경시대회 참가, 교과 관련 동아리 활동, 학내 탐구활동 등은 물론, 선생님께 심화개념을 질문했거나 친구의 공부를 도와주며 배우고 느낀 점 등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공통문항 2] 고교 재학 기간 중 의미를 두고 노력한 교내 활동-각종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충실하게 작성해야

공통문항 2번은 학업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리더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여 가능성, 성품, 책임감 등 비학업적 소양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문항이다. 각종 교내 대회 참가 및 동아리, 봉사, 학생회 활동 등 본인이 해온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단순히 나열하기보다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충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고려대, 경희대와 같이 자율문항을 통해 지원동기를 묻는 대학 이외의 경우에는 진로탐색 활동, 관심영역과 연결된 활동 등 지원하려는 전공과 관련한 활동을 중심으로 전공 선택 이유를 잘 녹여낸다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공통문항 3]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등을 실천한 사례와 느낀 점-본인의 가치관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공통문항 3번에서 묻고 있는 배려, 나눔, 협력 등은 혼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로 대인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지원자의 인성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라 볼 수 있다. 각각의 덕목과 관련한 사례를 들 때에는 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사례일 필요는 없으며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들 중 자신의 가치관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된다.

비슷한 상황 속에서도 해결 방법이나 느낀 점은 지원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당시 생각이 어떠했는지, 나아가 자신의 지

향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충실하게 담아내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자율문항] 성장과정, 지원동기, 대학 입학 후 학업계획 등

-전공 적합성과 지원동기 등을 적절히 녹여내야

자율문항은 각 대학별로 1,000자 또는 1,500자 이내에서 1개 문항을 추가할 수 있다. 2017학년도 각 대학별 수시모집 자기소개서 자율문항을 살펴보면 서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에서는 지원동기와 학업(진로)계획을 주요 질문 소재로 활용했다.

중앙대는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이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 가정, 학교, 지역 등 지원자의 교육 환경이 성장에 미친 영향을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한양대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지원동기를 명시해서 묻지 않아도 자기소개서 자체가 '내가 이 학교 또는 모집단위에 적합한 이유'를 소개하는 서류인 만큼 해당 문항 안에서 전공적합성과 지원동기 등을 적절히 녹여내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여러 모집단위에 지원할 경우 같은 내용을 묻더라도 지원 학교에 맞춰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 합격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2017학년도 주요 대학 수시모집 자기소개서 자율문항 대학명 자율문항

건국대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이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이나 지원자의 교육환경(가정, 환경, 지역 등)이 성장에 미친 영향 등을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1,500자 이내).

경희대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이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이나, 지원자의 교육 환경(가정, 학교, 지역 등)이 성장에 미친 영향 등을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1,500자 이내).

고려대 해당 모집단위 지원 동기를 포함하여 고려대학교가 지원자를 선발해야 하는 이유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동국대 해당 전공(학부, 학교)에 지원한 동기와 입학 후 학업계획 및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서강대 지원전공을 선택한 이유와 대학 입학 후 학업 또는 진로계획에 대해 기술하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서울대 고등학교 재학 기간(또는 최근 3년간) 읽었던 책 중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3권 이내로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각 500자 이내).

서울시립대 지원동기와 향후 진로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학부·과 인재상을 고려하여 작성)(1,000자 이내).

성균관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본인의 성장환경 및 경험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
- 지원동기 및 진로를 위해 노력한 부분
- 본인에게 영향을 미친 유·무형의 콘텐츠
(인물, 책, 영화, 음악, 사진, 공연 등)

연세대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이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이나 지원자의 교육환경(가정, 학교, 지역 등)이 성장에 미친 영향 등을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1,500자 이내).

중앙대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이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이나 지원자의 교육 환경(가정, 학교, 지역 등)이 성장에 미친 영향 등을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1,500자 이내).

한국외대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이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이

나 지원자의 교육환경(가정, 학교, 지역 등)이 성장에 미친 영향 등을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자 이내)

한양대 자기소개서 없음

홍익대 (서울캠퍼스자율전공) 지원 동기 및 대학 입학 후 학업 계획과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 기술하시오(1,500자 이내).

주) 각 대학별로 발표한 2017학년도 수시모집 제출서류 양식을 기준으로 함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목표 대학/학과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라!

자기소개서 작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목표 대학/학과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다. 각 대학별로 추구하는 인재상에 따라 리더십, 성실성, 전공적합성, 창의성 등 핵심 평가역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원하려는 대학의 모집요강은 물론, 해당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인재상과 기본적인 정보들을 탐색해두는 것이 좋다. 각 전공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전공에 대한 소개, 교과과정, 교수진 등도 확인할 수 있으며, 부모님, 선생님, 친구, 선배 등 주변 사람들에게 전공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자신의 강점과 그 근거를 찾아라!

목표 대학/학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에도 자기소개서 작성이 막막하다면 학교 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기소개서를 잘 쓰기 위해선 본인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학생부에는 내신 석차등급 외에도 인적 및 학적 사항, 출결, 수상경력, 진로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학습발달상황, 독서활동 등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학생이 무엇을 했는지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이 중에는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과목별 성적'과 같이 점수(등급)로 환산된 결과도 있지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처럼 교과 담당교사가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 특성을 기록한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부를 꼼꼼히 살펴보면 본인이 알지 못했던 자신의 강점과 그 근거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신성적 등급이 1등급이 아니어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교과 공부와 관련된 긍정적인 평가가 기재되어 있다면 학업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근거로 서술할 수 있을 것이다.

3. 자신만의 스토리를 담아라!

학생부는 '결과' 중심의 서류이기 때문에 많은 대학에서 자기소개서를 평가항목에 넣어 학생들의 성장가능성과 잠재능력을 평가한다.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학생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자신만의 스토리를 담아내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교내 경시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면 경시대회 참가 동기는 무엇인지, 교내 경시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없었는지, 만약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교내 경시대회 금상 수상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무엇인지 등을 상세히 담아내야 한다.

한편, 대학에서는 스스로 사과의 폭을 넓혀야만 공부를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넓고 깊게 공부하고자 노력하는 면모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 좋다.

4. 수정과 첨삭은 자신의 색깔을 잃지 않는 선까지만 하라!

자기소개서는 글쓰기 솜씨나 화려한 문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며 모범답안도 없다. 따라서 각종 미사여구로 화려하게 작성하는 것보다는 남들과 다른 나만의 경쟁력을 진솔하게 써내려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본인이 가진 강점들을 차근차근 분류한 후 지망하는 모집단위에 맞춰 나열하는 작업을 통해 전체 내용을 구성하고 이를 연결하면서 글을 써보도록 하자.

초고를 작성한 후에는 친구, 선생님 등에게 첨삭을 받는 것도 좋지만 지나치게 많은 사람의 수정을 거치면 본인의 색깔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수정, 첨삭하는 데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보다 다소 거칠더라도 본인의 스토리가 담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 자기소개서 최종 점검 항목

1. 해당 학교의 인재상과 특성, 전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했는가?
2. 주어진 환경 속에서 스스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드러나게 작성했는가?
3. 활동, 경험의 실적 나열보다는 경험의 가치가 부각되도록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들어 작성했는가?
4. 진로에 대한 부분이 입체적으로 드러나게 작성했는가?
5. 자기소개서의 각 항목이 일관성을 가지고 조화롭게 어울리도록 작성했는가?
6. 솔직한 내용을 논리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작성했는가?
7.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 기본적인 어법을 정확하게 구사했는가?



서울대 자소서 작성의 실제

1.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김경범 교수: “자소서에서 보고 싶은 건 딱 하나다. 앞으로 공부를 잘하고 싶은 의지나 마음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받는 게 자소서다. 그것을 보기 위해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학업에 임한 경험’을 물어보는 거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알고 싶은 것은 이것 하나다. 이게 첫 번째 질문으로 바뀌었다.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자소서 쓸 때 /달쯤 걸린다고 하더라. <수시에 지원하는 3학년 /학기까지의 고교생활 중> 2년 반 동안 ‘호기심’이라는 걸 가져본 학생이 없는 것 같다. 대부분이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쓴다. 고등학교 때 특별히 한 게 없다는 뜻이다. 몇 등을 했는지, 점수가 얼마나 올랐는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다 나와있다.”

→ 과거 2번 문항이었지만 2014부터는 1번이 됐다.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자소서에서 보고 싶은 것은 딱 하나”라고 표현하며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분량 또한 늘어났다. 띄어쓰기를 포함해 1000자 이내로

쓰라고 했던 것과 달리 올 입시에선 1500자를 쓸 수 있다. 학생들은 내신에서 공부했던 일화를 소개하는 대신, 진정으로 학문에 대해 지적 호기심을 가졌던 것과 그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 내용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가장 의미있는 활동 3개

김경범 교수: “학생들에게 이 항목을 채워 넣으라고 하면 학생부를 그대로 옮겨 쓴다. 이 질문은 1번의 ‘지적 호기심’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한다. 지적인 호기심을 가진 덕에 ‘어떤 활동을 했고’ ‘그것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를 보고 싶은 거다. 학생들은 교외 활동에서 한 개, 동아리 활동 중 한 개, 대회에서 수상한 것 한 개를 쓴다. 활동한 것들 중 나름대로 구색을 맞춰 세 개를 골라 쓰려고 노력한다. 우리가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은 ‘왜?’다. 왜 그 활동을 했는지, 그 활동이 왜 학생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이 질문을 넣은 거다.”

→ 대교협은 추가 질문을 할 때 ‘교외활동과는 관련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서울대는 ‘학내외 활동’이라고 표현하며 교외활동도 배제하지 않았다. 교내외를 구분하기보다 의미가 있는 활동에 더 무게를 두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학생들은 1번 질문과 연관된 활동 위주로 이 항목을 채워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기존에 있던 ‘활동영역’ 표기 칸이 사라졌다. 봉사활동의 경우 활동의 양보다는 봉사활동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삶에 받아들였는지가 더 중요하다. 실제로 300여 시간의 봉사활동을 하고도 불합격한 예가 있었다.

3.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3권

김경범 교수: “책 선정 이유를 쓰라고 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 저 책을 왜 선정했을까?’ ‘왜 이 책을 가지고 공부했을까?’다. 학생들은 거의 전부가 자소서에서 책의 내용을 쓴다. ‘이 책을 왜 골랐니?’를 물었는데 ‘저는 이 책을 읽은 게 확실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책의 줄거리를 쓴다. 질문과 대답이 서로 엇갈린 거다. 말 그대로 영향을 준 부분이 궁금한 것이다. <사정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다. 학생들이 지원서에 쓴 책 8000여 권을 통개로 내봤다. 재작년에는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한비야>’, 작년에는 ‘아프니까 청춘이다<김난도>’가 1위를 했다. 학생들은 인문계열의 경우 문학 국사 철학 중에서 한 권씩 고르는 등 조합을 하려 한다. ‘경영학과에 지원할 거면 경영에 관련된 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다. 학생이 왜 이 책을 읽었는지가 중요한 거다.”

→ 질문 밑에 “‘선정 이유’는 단순한 내용 요약이나 감상이 아니라, 읽게 된 계기, 책에 대한 평가, 자신에게 준 영향을 중심으로 기술”하라고 명시돼 있다. 김 교수는 그럼에도 “줄거리를 쓰는 학생이 많다”고 얘기했다. 책을 보고 자신에게 준 영향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책은 학과에 구애 받지 않고 전반적 교양이나 지적 관심 혹은 진로에 대한 영향 측면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에 우선선발된 학생 중 몇 명은 자신이 재미있게 읽은 소설책을 바탕으로 느낀 점을 솔직히 기술하기도 했다. 한 전문가는 책 항목의 중요성에 대해 “서울대가 강조하는 지적인 넓이와 깊이, 지평을 보여주는 항목이다. 학업적 능력 말고 전반적인 교양은 물론 학문적 관심사 지적인 넓이와 깊이, 간접경험인 독서를 통해 지식이 되어갈 가능성 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같은 내용의 책이라도 감명 깊거나 영향을 받은 대목과 구절을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지적인 감수성도 볼 수 있는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4. 주제선택: 어려움과 극복노력/사회적 기여와 책임/자유주제

김경범 교수: “‘알아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해보라’는 뜻이다.”

→ 2013학년도 이 선택문항에서는 ▲자신의 장단점이나 특성 ▲특별한 성장과정이나 가정환경(생활여건 등) ▲고등학교 시절 겪었던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를 골라서 쓰게 했다. 고교 시절 겪었던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서울대 학생으로서의 사회적 기여와 책임 또는 기타 자유롭게 쓰게끔 했다. 김 교수의 얘기처럼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어필할 수 있는 이야기를 쓰도록 한다.